

새싹 불자를 키웁시다

조계종 포교원 ·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현대불교 buddhanews.com
2007년 4월 18일 수요일 제 624 호 12

스크랩 대상 1화

“성불하세요 인사가 어찌나 감격스럽던지”

아이들이 신문 접한 후 달라졌다는 한 교장 “불교에 대한 오해와 편견 없애주는 기사들 신선한 지면·유익한 정보 가득 놀라워요”

동대부속여중 고마워요, 현대불교~!!



동대부속여중 불교반 연회회 3학년 학생들이 청소년면을 보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다.



한시연 교장(왼쪽)과 김남일 교법사(전국교법사단장, 왼쪽에서 두번째) 등 동대부속여중 교사들이 현대불교신문을 보며 토론을 하고 있다.

매주 전국 28개 초·중·고 교실에 빠짐없이 배포

“현대불교에서 오셨다고요? 어서 오세요!” 봄이 무르익어가는 4월 7일, 토요일을 기다려온 동국대학교 부속 여자중학교(이하 동대부속여중) 학생들이 교정에 핀 목련꽃처럼 환한 웃음으로 기자를 맞았다.

마침 수업이 끝나고 ‘부활(부서활동)’ 시간이라 동대부속여중 불교반 연회회 3학년 학생들의 ‘짜장라면’ 파티가 한창이었다. 기자가 동대부속여중을 찾은 것은 본지의 어린이 청소년 지면이 청소년들에게 어느 정도 다가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본지는 올해 12면과 13면을 ‘어린이청소년’ 지면으로 지정, 새싹불자 키우기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왔다. 이런 의지를 실천하고자 현재 본지는 매주 학교 28개 초·중·고 종합학교에 950부의 신문을 배포, 모든 교실에 빠짐없이 전달하고 있다. 이제 약 4개월째, 평소에도 선재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기로 소문난 동대부속여중에서는 ‘현대불교신문’이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지 궁금했다.

동대부속여중에서 본지를 읽는 데 가장 앞장서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한시연 교장(사진)이다. 한 교장은 매일 아침 7시 이전에 출근, 가장 먼저 학교 법당을 찾는다. 수행을 하고 집무실로 돌아오면 일주일에 한 번 도착하는 본지를 꼼꼼히 훑어본다. 한 교장은 “읽어보니 내용이 다양해서 이제 학생들에게도 자연스럽게 권하려고 노력한다”면서 몇 달 전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이전에는 학생들과 마주치면 그냥 반갑게 인사만 했는데 한 학생이 ‘선생님, 성불하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나 감격스럽던지... 새싹불자들이 자라는 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쿵쿵해요.” 자라나는 불교계의 희망을 보며 학생들이야말로 ‘보살’이라며 감동하면서도 한 교장에게 고민이 하나 생겼다. 학생들이 불교를 조금 더 쉽게 접하고, 더 많은 정보를 얻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그 때 본지가 전 종합학교에 신문을 배포하겠다고

고 나선 것은 정말 반가운 소식이었다. 한 교장의 고민을 털어줄 수 있는 매개체가 나타났기 때문. 종합학교라 해서 모든 학생들에게 종교를 강요할 수는 없다. 한 교장은 “그저 학교에 다니는 동안 불교에 대한 오해들-고리타분하다, 미신이다 등-만이라도 불식시킬 수 있었으면 한다”면서 본지가 그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직접 학생들에게 종교 수업을 하고 있는 교법사들도 “현대불교는 이미 도서관에 스크랩 해둬서 학

있을지, 방법을 함께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교법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짜장라면’이 배당됐다. 학생회장 태림이(3학년)가 배달부 역할을 하며 기자에게 현대불교에 대해 한마디 던졌다. “요즘 애들이 관심 있어 하는 정보가 종종 다뤄지는 것 같아요. 현대불교에서 일반적인 건강기사나 전시회 정보 등을 얻을 수 있어서 놀라웠어요.” 키가 큰 주아(3학년)는 불교신자가 아님에도 연회반 활동을 즐긴다. 그러다 보니 불교에 관심도 많아졌고 현대불교도 읽게 됐다고 한다. “신문 중앙에 두 페이지나 청소년 지면이라니! 그냥 재미로 연회반 활동을 해왔는데 현대불교를 통해 불교에 대해 조금은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성불하세요 인사가 어찌나 감격스럽던지” 아이들이 신문 접한 후 달라졌다는 한 교장 “불교에 대한 오해와 편견 없애주는 기사들 신선한 지면·유익한 정보 가득 놀라워요”



생들이 읽기 좋은 자리에 배치했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 중”이라며 본지의 어린이청소년 지면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김남일 법사(전국교법사단 단장)는 “과격적인 지면 구성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싶다”면서 “현대불교에 좋은 내용이 나올 때마다 자연스럽게 부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권진영 법사는 “새싹불자 포교의 저변이 제대로 마련되기도 전에 현대불교에서 먼저 아이들에게 다가왔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했다. 하지만 권 법사는 본지가 학생들과 불교를 잇는 가교 역할을 좀 더 단단히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함께 전했다. “학생들이 불교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청소년 정보를 전달해주었으면 합니다. 디지털 세대에겐 신문은 다가가기 어려운 매체입니다. 그런 현실이지만 불교의 본질과 청소년 사이를 어떻게 이을 수

그렇다면 학생들이 본지에서 찾아낸 ‘부족한 2%’는 무엇일까. 송이(3학년)는 “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사찰 행사나 불교학생회 정보를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옆에 있던 미연이(3학년)는 “좀 더 부드러운 신문이었으면 좋겠다”면서 “요즘 유행하는 숫자 맞추기 게임이나 숨은그림찾기 같은 것이 있으면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이 볼 것 같다”고 귀띔했다. 본지가 새싹불자 포교를 위해 가야 할 길은 멀다. 이제야 도약의 발판만을 마련한 셈이다. 지금은 새싹불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려는 다양한 요구와 그에 발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할 때다. “지금보다 더 기다려지는 신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불교에 많은 기대를 걸어요. 좋은 정보, 멋진 기사 부탁드려요!” 글·사진·김강진 객원기자

6 어린이/청소년 정보마당 순 마감한다. (02)739-4967

경기도 여주 이천 광주에서는
4월 28일부터 한 달간 세계도자비엔날레가 열린다.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늘려 가족단위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 (031)631-6501

강원도 영월에서는
4월 27일~29일 영월군 장릉(단종 왕릉)과 동강둔치, 청령포, 문화예술회관에서 ‘단종문화제’를 연다. 단종 국장과 궁중제례의식에 따른 육일무 등과 조선왕릉 사진전을 감상할 수 있으며 유류피우기, 북 만들기, 한지 뜨기 등 체험 행사도 즐길 수 있다. (033)370-2226-7

대한불교교사대학에서는
어린이 포교에 관심 있는 스님, 재가자를 대상으로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교육은 불교교리, 교육이론, 실기 등으로 진행되며 4월 25일까지 선학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세계 책의 날’을 맞이해 4월 22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기념행사를 진행한다. 행사는 책 만들기 체험, 구연동화 듣기, 강연회 등으로 구성되며 무료로 참여 가능하다. 반드시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02)2669-0742-44

서울시에서는
5월 5일 어린이날 ‘꿈을 키우는 내 친구 서울 어린이 백일장’을 한강시민공원 이촌지구자연학습체 협장 옆에서 개최한다. 서울시내 초등학교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 행사는 서울시 어린이 홈페이지(ki.seoul.go.kr)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은 4월 25일. (02)731-6045

※정보마당에 소식 전할 학교나 단체는 (02)2004-8282로 연락주세요.

“틱낫한스님 친견 및 마가스님 명상수행 순례”

-베트남수도 하노이에서...

기간: 2007년 5월 2일 ~ 5월 6일

주요일정: 인천 - 하노이 - 베트남북부(하롱베이) - 틱낫한스님 친견 - 인천

출발인원: 60명(선착순마감)

동참금: 890,000 / 1인

예약방법: 계약금 및 여권복사본 (잔여기간 6개월 필요)을 보내주시면 예약됩니다. ※계약금 ₩200,000

계좌: 농협 053-02-171800(예금주: 구광국아제여행사)

“참가자 전원에게는명진출판사에서 틱낫한 스님의 책(기도)를증정합니다.”
www.ajetur.co.kr

아제여행사 특별특정

- ▶티벳하늘열차 8일 5월 28일, 6월 19일, 6월 23일 1,790,000
- ▶초조달마에서육조혜능 선사 선적지 8일 6월 5일, 9월 1일, ₩1,490,000
- ▶구화산,황산5일 5월 26일 ₩799,000
- ▶대만 불광사,자재정사순례5일 5월 26일 ₩890,000
- ▶불탑의 나라 미얀마 7일 5월 26일 ₩1,590,000
- ▶보타산/천태산/상해5일 5월 28일 ₩840,000
- ▶동유럽 7개국12일 6월 1일 ₩3,050,000
- ▶금모곡(현재 8분) ▶시베리아행단열차 12일 4월 23일 ₩3,090,000
- ▶호주뉴질랜드남북섬10일 5월 26일 ₩1,990,000

since 1999 문의: 불교성지순례전문 아제여행사 TEL: 02)730-4008(대) FAX: 02)725-5006
주소: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32 우정에셋빌 1403호(우:110-170)

전강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1,700여 공간이 집대성되어 있는 선종의 고전 전등록. 1만여 공간 도리를 품고 있는 최대의 공간집 선문염송. 이 방대한 선종의 양대 산맥을 오늘에 되살려놓은 <바로보인 전등록>과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강대선사님의 인가 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깨달음의 정수가 살아 숨쉬도록 새롭게 밝혀 보았다.

대웅전 원공 기념 파격할인!!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 5만원(45% 할인)
바로보인 선문염송 1~10권: 105,000원(30%할인)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대한민국의최초” 이동식 전통한옥!!

언제 어디서든 원하시는 장소에 이동해 드립니다

조립식 건축 H-빔 제작설치 이동식 주택및팬션 전통한옥 철골조공사

그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다채로운 하우징만의 기술적인 만능!!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쁜게 시공해 드립니다.

※ 사찰의 부속건물로서, 종무소, 요사채, 삼성각, 기타 등등 여러가지 용도로 활용 가능합니다.

본사: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월산리 283-4
TEL 031)594-7488 / FAX 031)594-2054 / 017-313-1474
E-mail: kyungki3333@naver.com
홈페이지: www.drnhousing.co.kr

이동식 전통한옥(다채실,사랑채)건축 전문업체
다라리하우징